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합병... 20조 ‘메가 핀테크’ 탄생

양사, 내일 각각 합병안 의결
27일 합병 비전·로드맵 공식 발표
합병방식 ‘포괄적 주식교환’ 유력



이해진 네이버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네이버파이낸셜이 전격 합병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빅테크 간편결제 플랫폼이 결합한 ‘메가 핀테크’가 탄생하는 셈으로, 합병 총 기업가치는 약 20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24일 금융·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 1784’에서 합동 기자

회견을 열고 합병 비전과 통합 법인 로드맵을 공식 발표한다.

기자회견에는 송치형 두나무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양사 핵심 경영진도 총출동한다고 알려졌다.

합병 방식은 ‘포괄적 주식교환’이

유력하다. 두나무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네이버파이낸셜 신주와 교환하는 구조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시장에서는 두나무 기업가치를 약 15조원, 네이버파이낸셜을 약 5조원으로 평가해 합병 비율은 두나무 1주 대 네이버파이낸셜 3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율이 적용될 경우 두나무 창업주인 송치형 회장(약 25% 추정)과 김형년 부회장 등 주요 주주가 통합 법인의 약 30%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주주이던 네이버의 지분율은 기존 69%에서 약 17%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송 회장 측이 의결권 상당 부분을 네이버 측에 위임하는 방식 등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네이버가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설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당국의 합병 심사도 핵심 변수다. 국내 1위 코인거래소와 1위 간편결제 사업자의 결합인 만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 제한 여부를 정밀 심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 또한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 즉 ‘금융 리스크의 시스템 확산’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현대차·기아

대형 SUV 투입

북미시장 ‘정조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해소한 현대자동차·기아가 북미 시장에서 대형 SUV 하이브리드 투입을 본격화하며 수익성 방어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3분기부터 북미 시장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 8월 3437대에서 9월 7325대로 두배 이상 늘렸으며 추석 연휴로 일주일가량 공장 가동을 중단한 10월에도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5672대를 해외로 수출하는 등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가 북미 하이브리드 시장 성장세에 맞춰 팰리세이드를 라인업에 추가해 판매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투입
9월 물량 7325대 전월비 2배 늘어

기아,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출격
‘현지 대표차종’ 연간 11만대 판매

그동안 현대차는 북미에서 쏘나타와 쏘타페, 투싼 등의 하이브리드를 판매했으며, 올해 1분기 북미에서 판매한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39만 6000대로 전년 동기(26만 2000대) 대비 50% 가량 증가했다.

기아도 내년 1분기부터 텔루라이드 완전 변경 모델에 처음으로 하이브리드를 추가하고 북미시장에 투입한다. 텔루라이드는 기아가 북미 시장을 겨냥해 지난 2019년 출시한 모델로 연간 약 11만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현지 대표 차종 중 하나다. 출시 이후 올해 10월까지 북미 시장에서 65만 4667대가 팔렸다.

제네시스는 내년 하반기 주력 모델인 GV80 최초의 하이브리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GV80 하이브리드는 2.5ℓ 풀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제네시스의 첫 하이브리드 SUV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대차·기아가 북미 시장에 하이브리드를 대거 투입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의 영향도 있다. 미국 정부가 최대 7500달러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을 지난 9월 말 폐지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의 판매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이브리드의 수익성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통상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유사한 원가지만 가격이 10% 가량 높아 수익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판가가 높은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평균판단가(ASP) 하락을 제한할 것이라 분석이다.

효성重, 4분기 영업이익 2123억 예상... 전년비 60% ↑

4분기 매출 1.7조 실적개선 흐름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초고압 변압기·GIS 발주 증가세

효성중공업이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맞물리며 변압기 등 고사양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한 점이 실적 개선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의 4분기 매출을 1조 7243억원, 영업이익을 2123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73%, 60.53% 증가한 수준이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3분기에도 매출 1조

6241억원, 영업이익 2198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글로벌 수주잔고는 약 1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해 외형 성장세가 뚜렷해졌다.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초고압 변압기와 GIS(가스절연개폐장치) 발주가 동반 증가하는 추세다.

북미·유럽 유틸리티 기업들의 송전망 확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송전 전압이 500~765kV로 고사양화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숙련 인력 부족에 따른 공급 제약이 지속되면서 주요 제작사의 증설에도 공급 부족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확충과 노후 설비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발주가 꾸준히 증가하는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미국의 전력 수요는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확장과 함께 급격히 늘고 있으며, 변압기 시장은 연평균 7.7%씩 성장해 지난해 122억 달러(17조 8000억원)에서 2034년 257억 달러(37조 5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효성중공업의 북미 수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은 미국 멤피스 공장이다. 이 공장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kV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며, 효성중공업은 오는 2028년까지 1억 57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해 생산능

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미쓰비시로부터 약 500억원에 인수한 이후 AI·전력 인프라 수요 급증과 맞물리며 멤피스 공장을 풀가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멤피스 공장 외에도 효성중공업 소속 전력기기 공장들의 전체 전력기기 공장 가동률도 올해 3분기 말 기준 104%에 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효성중공업은 스코틀랜드 프로젝트 이후 영국 법인까지 설립되면서 유럽 대응력이 이전보다 확실히 강화된 상태”라며 “미국 역시 노후 전력설비 교체와 AI 데이터센터 확장세가 겹치며 발주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구축된 기술 신뢰도와 사후 지원 역량이 반복 수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캐나다 ‘60조 결정권자’ 한화오션 방문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장관
거제사업장서 ‘장영실함’ 등 시찰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서 핵심 결정권을 쥐는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ISED) 장관이 24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30일 마크 카니 총리에 이어 불과 한 달도 안 돼 캐나다 정부 핵심 인사가 연달아 한국 조선·방산 현장을 찾은 것으로 캐나다가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얼마나 높게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행보라는 평가다.

24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졸리 장관은 이날 최근 인수된 ‘장영실함’을 둘러보고, 한화오션이 CPSP 사업에 제안한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잠수함의 설계·생산 체계와 기술 능력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여러 척의 장보고-Ⅲ 배치-Ⅱ급 잠수함이 동시 건조되는 생산 라인을 시찰하며 대형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일정 준수 역량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카니 총리가 현장을 찾았을 때 “세계를 하나로 잇고 지켜내는 훌륭한 기업을 만들었다”고 평가했

던 데 이어, 실무 최고 책임자의 방문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이 한층 깊어진 모습이다.

한화오션은 산업부(ISED)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캐나다 산업 전략과 공급망 강화, 기술·혁신 투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 회사 관계자는 “CPSP 사업이 카니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을 구현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재정의되고 있다”며 “졸리 장관의 방문은 사업을 산업·기술·경제 관점에서 심층 평가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성능 외에도 자국 내 유지보수(MRO) 역량 확보, 산업적 파급 효과, 공급망 구축 여부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잠수함 사업이 캐나다 조선·방산 기반 재건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과 직결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임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기술 이전·공급망 협력·현지 생산 경험 등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오션은 이번 방문에서 CPSP 제



24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앞줄 왼쪽 첫 번째)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에게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특수선 안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오션

안 모델을 토대로 기술 이전 범위, 현지 생산·정비 체계 구축, 캐나다 기업 참여 모델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보고-Ⅲ 배치-Ⅱ급을 실제로 다수 건조하고 있는 생산 현장을 보여주며 일정 준수와 품질 관리가 가능한 설계·조선 능력을 강조했다라는 평가다.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은 최신 AIP(공기불요추진) 기술과 대형 플랫폼 설계를 적용한 한국 해군 차세대 주력 잠수함이다. 한화오션은 설계·건조·정비·성능개량 등 전 주기 역량을 갖춘 조선·방산 기업으로, 이는 캐나다가 중

시하는 ‘장기 유지보수 역량’ 측면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전망이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캐나다 졸리 장관의 이번 방문은 한화오션이 제안한 CPSP 사업이 본격적인 경쟁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한화오션은 캐나다 해군의 작전 요구조건을 충족할 최적 설루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캐나다가 원하는 속도, 규모, 기술 이전, 공급망 구축을 동시에 실행하며 캐나다 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신뢰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양성운 기자 ysw@